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10대 암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했고, 시점은 2016년~2020년으로 통일했다.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발생자 수가 가장 많고, 신장암, 담낭암,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훨씬 덜 발생한다. 시도별 5년간(2016~2020) 암 발생자 수 집계 결과, 경기도 > 서울 > 경북, 경남, 부산 > 나머지 지역 > 세종, 울산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신규 암 등록자 수는 대체적으로 남녀 모두 50대에서 70대까지가 가장 많다. 특이한 점은 연도에 상관없이 30대와 40대에서 여성의 등록자 수가 남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5년상대생존율의 경우,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 남녀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폐암은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전립선은 남성만 가지고 있어서 전립선암의 생존율은 남성만 집계된다.